

통학 환경이 상경 대학생의 범죄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commuting environment on crime anxiety in university student who moved to Seoul

김 명 환 * 류 새 배 ** 이 준 오 *** 조 미 정 **** 이 명 훈 *****
Kim, Myoung-Hwan Ryu, Sae-Bae Lee, Jun-Ohn Cho, Mi-Jeong Lee, Myeong-Hun

Abstract

The recent nationwide stabbing incident has amplified citizens' anxiety about crime and has a great impact on the decline in quality of life. In particular, college students who migrated for academic purposes are a group with relatively great anxiety in adapting to the new environment. However, studies that empirically analyzed crime anxiety for these migrants are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commuting environment in Seoul on the crime anxiety of college students who have migrated. A survey was conducted on college students living in dormitories operated by Jeollabuk-do and Jeollanam-do.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gender and commuting tim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rime anxiety. Second, adult entertainment facilities, lodging facilities,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crime prevention facilities had significant impact on crime anxiety. Third, floating population, traffic volume, and urban cleanliness had significant impact on crime anxiety.

Therefore, this study derives policy suggestions for safe urban desig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nd hopes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s well as resolving crime anxiety.

색인어 : 통학 환경, 상경, 대학생, 범죄불안감

Keyword : Commuting environment, Moving to seoul, University student, Crime anxiety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학과 석사과정(주저자 : mema1998@hanyang.ac.kr)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공저자1 : toqo1107@hanyang.ac.kr)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학과 석사과정(공저자2 : ljomatthew@hanyang.ac.kr)

****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공저자3 : cmj2816@nate.com)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교신저자 : mhlee99@hanyang.ac.kr)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의 범죄 현황은 2022년 총 1,133,788건이 검거되었으며, 검거된 인원은 1,250,330명이었다. 2019년 이후 검거 건수와 검거인원 모두 대체적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부터 증가하고 있다(경찰청범죄통계, 2022). 또한 최근 부산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용인시 죽전역 칼부림 사건, 서울시 신림역 칼부림 사건, 성남시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유동 인구나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에서 살인, 폭행 등의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불안과 공포를 크게 느끼며, 삶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

삶의 질은 개인의 행복, 만족, 건강 등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특히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범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범죄는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도시의 물리적,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Brantingham, 1993). 따라서 범죄와 도시 환경에 대한 연구는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설계 및 계획에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업을 목적으로 서울로 상경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진행하여, 이들의 통학 환경이 범죄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주한 20대 청년은 약 60만명에 육박한다. 이 중 서울로 순수입된 20대 인구는 약 34만명이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옮긴 이유는 취업과 학업이다. 주요 기업, 공공기관의 본사나 본부, 주요 대학이 몰려있기 때문이다(통계청, 2023).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주는 불확실성을 가져오며, 이는 대인관계, 환경, 범죄 등에 관한 다양한 불안감을 조성한다(Jim Fork, 2023). 이에 이주 대학생은 타 집단보다 상대적인 범죄 불안감이 높은 집단으로 판단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의 통학 환경이 상경 대학생의 범죄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범죄 불안감 해소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계획과 정책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전라북도 서울장학숙과 남도학숙에 거주 중인 상경 대학생이며, 2023년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은 기숙사와 서울시 소재 대학교 간의 통학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 불안감에 대한 응답을 하였음에 따라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첫째,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서울시의 도시환경 변수를 설정한다. 둘째, 설문 조사를 통해 설정된 변수별 범죄 불안감 데이터를 추출한다. 셋째, 종속변수인 범죄 불안감에 유의미한 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넷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설계의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이론 고찰

1) 범죄 불안감과 삶의 질

범죄 불안감이란 개인이 범죄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심리 상태이다. 이는 객관적인 범죄피해 위험과 별개로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에 근거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개인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거나 일상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에 대한 불안감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범죄 불안감은 2013년 30.3%에서 2021년 14.3%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성별로 구분 시 여성의 불안감 수준이 남성보다 약 3~4배 높으며, 연령대별 구분 시 10대와 20대의 범죄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령이 낮을수록 범죄피해 두려움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2022).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문지마 칼부림'과 같은 강력범죄 사건으로 사건의 인하여 82%가 '문지마 범죄 피해를 당할까 걱정된다'고 답했다.(한국갤럽, 2023). 이는 시민들이 연속된 강력 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범죄 불안감이 누적되어 집단적 트라우마 현상이 발생했으며 삶의 질 저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 Though Environmental Design)는 환경적 설계를 통해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하는 접근법이다. 도시 및 지역 환경을 설계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증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C.Ray Jeffery, 1971) 이러한 CPTED의 핵심 원리 및 접근방법은 <표1>과 같다.

표 1. CPTED 주요원리 (출처:서울특별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감시 (조직적, 기계적, 자연적) ▶	접근통제 (조직적, 기계적, 자연적) ▶	공동체 강화 (근린교류 활성화)
자연감시	주변을 잘 볼 수 있고 은폐장소를 최소화시킨 설계	
접근통제	외부인과 부적절한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설계	
영역성 강화	공간의 책임의식과 준법의식을 강화시키는 설계	
활용성 증대	자연감시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는 설계	
유지관리	지속적으로 안전한 환경 유지를 위한 계획	

3) 대한민국의 범죄 현황

2022년 총 1,133,788건이 검거되었으며, 검거된 인원은 1,250,330명이었다. 2019년 이후 검거건수와 검거인원 모두 대체적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지능범죄는 2018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2020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1년 큰 폭으로 감소 후 2022년 다시 증가하였고, 교통범죄는 2018년부터 검거건수와 검거인원 모두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폭력범죄, 절도범죄, 강력범죄는 2018년 이후 다소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강력범죄의 범행장소는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노상, 상점, 숙박업소 및 목욕탕, 유흥접객업소, 사무실, 교통시설 등의 순서로 범죄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경찰청범죄통계,2022)

표 2. 2018~2022' 범죄유형별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추이 (출처 : 경찰청범죄통계, 2022)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검거건수	검거인원								
범죄유형										
전체범죄	1,328,609	1,581,922	1,342,854	1,585,638	1,289,129	1,494,421	1,136,665	1,247,680	1,133,788	1,250,330
강력범죄	25,811	28,302	25,507	28,943	23,556	26,971	21,294	22,992	23,521	25,017
절도범죄	106,669	97,334	113,673	101,295	111,246	98,425	104,013	85,687	113,705	94,315
폭력범죄	251,586	348,969	252,877	346,561	230,773	313,990	200,808	264,229	209,789	274,673
지능범죄	245,413	292,114	267,063	308,782	279,050	307,706	215,471	210,381	229,265	219,700
풍속범죄	18,390	32,183	19,279	33,779	20,514	34,671	20,139	29,030	22,384	30,991
특별경제범죄	46,222	75,348	44,878	79,175	41,802	67,904	34,525	46,846	39,078	50,673
마약범죄	6,168	7,677	7,588	9,875	8,707	11,630	7,569	10,173	9,881	11,948
보건범죄	10,724	16,965	12,289	18,024	14,121	21,810	16,229	38,943	16,807	56,720
환경범죄	4,662	4,066	3,716	5,088	3,350	4,329	3,457	3,853	3,086	3,689

통학 환경이 상경 대학생의 범죄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교통범죄	397,277	413,147	367,602	383,717	339,921	356,446	300,680	311,232	233,413	240,216
노동범죄	1,851	2,073	932	865	319	613	383	670	686	617
안보범죄	50	187	156	545	166	678	105	739	169	682
선거범죄	1,746	3,280	587	1,180	731	1,545	199	312	2,179	3,767
병역범죄	13,137	13,254	11,742	11,809	3,032	3,164	1,365	1,395	3,850	3,909
기타범죄	198,903	247,023	214,965	256,000	211,841	244,539	210,383	221,198	225,975	233,413

(단위 : 건, 명)

표 3. 2022' 강력범죄 발생장소 (출처 : 경찰청범죄통계, 2022)

구분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주택	노상	상점	숙박 업소, 목욕탕	유흥 접객 업소	사무실	역, 대 합실	교통 수단	유원지	학교	금융 기관	기타
소계	90,399	9,781	7,906	29,320	10,556	980	5,939	1,630	1,073	2,897	962	428	648	18,279
살인	104	30	26	17	2	-	5	5	2	1	1	-	-	15
강도	117	12	11	39	16	2	6	5	1	2	-	-	1	22
성폭행	5,816	551	578	950	191	277	679	152	178	829	68	47	4	1,312
절도	37,579	2,886	1,579	11,442	8,991	337	1,684	420	348	1,007	487	189	578	7,631
폭력	46,783	6,302	5,712	16,872	1,356	364	3,565	1,048	544	1,058	406	192	65	9,299

3. 선행연구 고찰

도시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인구 구성, 접근성, 토지이용, 건축 형태 등 여러 복합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 연구에서는 도시 환경과 범죄 발생 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Jindo Jeong. et al(2023)는 서울시의 도시 환경과 범죄 발생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구밀도, 노후건축물, 녹지공간, 주거 및 상업 용도의 토지이용이 높은 지역의 범죄 발생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설·김흥순(2023), 이수창(2019) 등 공간회귀 모형을 통해 도시특성과 범죄 발생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인 가구, 재개발·재건축, 유흥시설, 고층 건물은 범죄 발생을 상승시켰으며, 치안시설, 버스 정류장은 범죄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의 경우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처럼 인구 밀집된 주택형태가 범죄 발생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Ahmad Nazri(2013)는 GIS의 핫스팟 분석을 활용하여 말레이시아 도심지의 토지 이용이 범죄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업지역(은행 및 쇼핑몰)과 주거지역, 교통량이 높은 지역이 범죄율이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재·조월·이수기(2022)는 도시환경 특성과 범죄 발생의 연관성을 빅데이터와 공간더빈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량, 간판과 도로 비율이 높을수록, 녹지 비율이 낮을수록, 민원 신고 건수가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범죄 발생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시환경과 범죄 불안감에 관한 연구는 대상지를 주거지 혹은 대학교 인근 등으로 한정하였으며, 범죄 불안감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을 설문 조사를 통해 데이터로 수치화하였다. 범죄 불안감을 상승시키는 도시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범죄 불안감을 이해하며 범죄 예방 정책 개발에 도움을 주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졌다. 장세린·홍성조(2021)는 도시환경이 충북대학교 학생의 귀갓길 범죄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흥주점, 편의점, 노래방 인근에서 범죄 불안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진·김고원·오하늘·박승연·강석진(2023)은 성별에 따른 대학가 가로환경의 범죄 불안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침입범죄, 여성의 경우 성범죄와 같은 대인 범죄에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고원·강석진(2022)는 CPTED인증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 불안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야간에 인식하는 범죄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범죄 불안감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거지 혹은 대학 캠퍼스 근처와 같이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기숙사에서 재학 중인 서울 소재 대학교까지의 통학 경험을 토대로 범죄 불안감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서울시로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학업을 목적으로 서울로 상경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이들의 통학 환경이 범죄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주는 불확실성을 가져오며, 이는 여러 방면으로의 불안감을 조성한다. (Jim Fork, 2023) 특히 20대 대학생은 SNS를 활발히 이용하며, 사회적 유행 및 이슈 등에 집단적 민감성이 높은 집단이다. 이에 상경 대학생은 타 집단보다 상대적인 범죄 불안감이 높은 집단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상경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 불안감을 분석했다는 점이다.

Ⅲ. 분석의 틀

1. 설문 조사 구성

본 연구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추출한 데이터를 통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3년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학업을 목적으로 서울로 이주하여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서 운영 중인 전라북도 서울기숙사와 남도학숙에 거주 중인 대학생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상경 대학생은 상경 집단의 범죄 불안감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설문지는 총 134부 회수하였으며, 그 중 성실하게 응답한 127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은 <표4>와 같다.

표 4. 응답자 특성

N=127

구분		빈도(%)
성별	남성	45(35.43)
	여성	82(64.57)
소속 기숙사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81(63.78)
	남도학숙	46(36.22)
상경기간	1년 이하	48(37.80)
	1~2년	33(25.98)
	2~3년	19(14.96)
	3~4년	15(11.81)
	4년 이상	12(9.45)

2. 변수 설정

본 연구는 대학생이 통학 간 느끼는 주관적 범죄 불안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가 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론 및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는 독립변수를 도출하였으며, 설문 응답자의 개인 특성은 성별, 연령, 상경기간, 귀가시간, 도시의 물리환경 특성은 유흥시설, 방범시설, 숙박시설, 보도 폭, 조명 밝기, 교통시설, 통학환경 특성은 유동인구, 교통량, 거리 청결도, 사각 지대, 골목길로 구성하였다. 설정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5>와 같다.

표 5. 변수 설명

구분		변수 설명	
종속 변수	범죄불안감	범죄피해에 대한 불안감 (5점 리커트 척도)	
독립 변수	개인 특성	성별	남성 =1, 여성=0
		연령	응답자의 나이(세)
		상경기간	응답자의 상경기간 1년 이하:1, 1~2년:2, 2~3년:3, 3~4년:4, 4년 이상:5
		귀가시간	응답자의 평균 귀가시간 18시 이전:1, 18~20시:2, 20~22시:3, 22~00시:4, 00시 이후:5
	물리 환경적 특성	유흥시설	유흥업소 부근에서 범죄 불안감 (5점 리커트 척도)
		방범시설	방범시설 여부에 따른 범죄 불안감 (5점 리커트 척도)
		숙박시설	숙박시설 부근에서 범죄 불안감 (5점 리커트 척도)
		보도폭	보도폭에 따른 응답자의 범죄 불안감 (5점 리커트 척도)
		가로등	가로등 유무에 따른 범죄불안감 (5점 리커트 척도)
		교통시설	교통시설 부근에서 범죄 불안감 (5점 리커트 척도)
	통학 환경적 변수	유동인구	유동인구에 따른 범죄 불안감 (5점 리커트 척도)
		교통량	교통량에 따른 범죄 불안감 (5점 리커트 척도)
		도시 청결도	도시 청결도에 따른 범죄 불안감 (5점 리커트 척도)
		사각지대	사각지대(시야 확보 불편 유발)에 따른 범죄 불안감 (5점 리커트 척도)
		골목길	골목길로 통학 시 범죄 불안감 (5점 리커트 척도)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종속변수인 범죄 불안감이라는 정서적 심리상태를 측정하였으며, 구성된 독립변수들이 범죄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Ordered Logistic Regression)모형을 활용하였다.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반응을 다루는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 유용한 분석 도구이다. 특히 위계(hierarchy)를 가지지 않고, 단순히 순서화(ordered)된 형태의 자료인 리커트 척도로 설문 조사된 응답을 회귀식으로 처리 가능하며, 목표변수가 순서화된 다항의 선택을 다룰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순서화된 형태의 데이터인 범죄 불안감에 설정된 독립변수가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P(Y \leq j) = 1 / (1 + e^{(\alpha_j - \beta^T X)})$$

- $P(Y \leq j)$: 종속 변수인 범죄 불안감이 j번째 범주 또는 그 이하의 범주에 속할 확률
- α_j : j번째 범주에 대한 경계값
- β : 독립변수들의 회귀 계수
- X : 독립 변수들의 값

IV. 실증분석

1. 기초통계 분석

<표6>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를 정리한 내용이다. 응답자는 거주 기숙사에서 재학 중인 학교까지의 상경 경험만을 본 응답에 사용하였으며, 각 변수별 범죄 불안감에 어떠한 연관성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표 6. 기초통계량

N=127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범죄불안감	3.346	0.903	1	5
성별	0.354	0.480	0	1
연령	21.032	2.112	18	27
귀가시간	2.835	1.334	1	5
상경기간	2.291	1.067	1	5
유흥시설	3.378	1.119	1	5
방법시설	3.772	0.961	2	5
숙박시설	3.370	0.990	1	5
보도폭	3.732	0.947	1	5

가로등	2.425	0.922	1	5
교통시설	3.984	1.016	1	5
유동인구	4.346	0.749	1	5
교통량	3.984	1.016	1	5
도시 청결도	3.165	1.118	1	5
사각지대	3.630	1.006	1	5
골목길	3.441	1.059	1	5

2. 분석 결과 및

<표7>은 응답을 바탕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 sitic Regression)의 결과이다. 본 연구의 분석의 관찰 데이터는 총 127개 이며, 'Prob>chi2=0'이므로 본 분석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귀가시간이 범죄 불안감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의 범죄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귀가시간이 늦을수록 범죄 불안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학 경로에 방범시설이 있을 시 범죄 불안감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불안감이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므로 방범시설의 존재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통학 경로에 유흥업소, 숙박업소, 교통시설 있을 시,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통학 시 범죄 불안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보통 오픈된 공간이며, 범죄자에게 범죄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분석 결과, 최근 발생한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한 문지마 범죄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범죄 불안감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장소에 있어 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방범시설 및 서비스 설치, 경찰순찰 강화 등 범죄 예방 계획 및 관리가 필수적이다.

표 7. 분석결과

구분	범죄불안감	Coef.	Std. Err.	z	P> z
개인 특성	성별(남=1)	-1.430**	0.530	-2.70	0.007
	연령	-0.622	0.138	-0.45	0.652
	귀가시간	0.403**	0.198	2.03	0.042
	상경기간				
	1~2년	0.353	0.577	0.61	0.541
	2~3년	0.394	0.649	0.61	0.543
	3~4년	-0.073	0.855	-0.09	0.932
	5년 이상	1.200	0.975	1.23	0.219
물리 환경적 특성	유흥시설	1.700***	0.497	3.42	0.001
	방범시설	-0.489**	0.223	-2.19	0.028
	숙박시설	0.560**	0.262	2.14	0.033
	보도폭	-0.617*	0.327	-1.88	0.060
	가로등	-0.525	0.359	-1.46	0.144
	교통시설	0.824**	0.366	2.25	0.025
통학 환경적 특성	유동인구	0.904**	0.411	2.2	0.028
	교통량	0.481**	0.218	2.21	0.027
	도시 청결도	-0.718**	0.265	-2.71	0.007
	사각지대	0.544*	0.294	1.85	0.065
	골목길	-0.586*	0.354	-1.66	0.098
	/cut1	-1.682032	3.845082		
	/cut2	2.978968	3.778383		
	/cut3	5.613428	3.799325		
	/cut4	10.49641	3.913772		

***p<0.01, **p<0.05 *p<0.1

V. 결론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통학 환경이 상경 대학생의 범죄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범죄 불안감이라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수치화하기 위해 리커트 5점 척도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통학 경험을 기반으로 설정된 변수가 응답자의 범죄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귀가시간이 범죄 불안감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통학 경로에 유흥시설, 숙박시설, 교통시설이 있는 경우 범죄 불안감이 상승하였다. 셋째, 통학 경로에 방범시설(CCTV, 비상벨, 경찰서, 파출소 등)의 여부가 범죄 불안감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높을수록 범죄 불안감이 상승하였다. 다섯째, 도시 청결도가 낮을수록 범죄 불안감이 상승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에 대한 방범 정책의 확대 및 강화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이 느끼는 범죄 불안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는 싱글 여성 홈 방범서비스, 무인 택배함(여성 안심택배) 설치,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등 여성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 중이나,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는 주말 및 공휴일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여성 안심귀갓길의 경우 서울시에 353개 설치되었으며, 실제로 범죄 발생 감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 실효성에 관한 의문을 품고 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방범 정책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의 확대이다. 범죄예방환경설계는 2000년을 기점으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었다. 최근 제도적 기반이 구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활성화되었거나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도시건축 실무자들의 이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대학생은 유흥업소, 숙박업소, 교통시설 인근에서 통학 시 범죄 불안감이 상승함을 확인하였으며, 이 장소는 유동 인구와 교통량이 높은 공간이다. 그동안 범죄 예방디자인은 학교 혹은 주거지 주변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외의 도시 공간에서의 적용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 불안감을 상승시키는 공간 또한 범죄예방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도시 청결에 대한 관심 및 정책 강화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거리 청결도가 낮을 시 범죄 불안감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따르면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가로 쓰레기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내 거리에 쓰레기통이 충분하게 설치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2 도시 청결 종합 대책'을 실시하며 도시 청결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시민들이 느끼는 청결에 대한 만족도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민의 범죄 불안감 저감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도시 청결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지의 응답자 중 여성 비율이 약 65%로 특정 성별에 치우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둘째, 시계열자료가 아닌 응답자 개인의 경험이라는 일정 시점의 횡단면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통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범죄 불안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셋째, 대상지를 서울시로 하였기에 다양한 대상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하여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1. 경찰청(2022), “경찰청범죄통계 2022”
2. 서울특별시(2013), “서울특별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3. 통계청(2023), “청년삶실태조사”
4. 한국갤럽(2021), “묻지마 범죄 피해 우려에 대한 여론조사”
5. 통계청(2022),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6. 이수창(2019), “공간회귀분석을 활용한 살인사건 영향요인 분석” 「한국융합학회」 10(5):203-211
7. 백설 · 김홍순(2023), “공간모형의 활용을 통한 도시 특성과 도시 범죄 위험도 간의 영향관계 분석”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58(1):16-32
8. 김선재 · 조월 · 이수기(2022), “도시환경 특성과 범죄발생의 연관성 분석-도시 빅데이터와 공간더빈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도시설계학회」 23(3):13-162
9. 장세린 · 홍성조(2020), “도시환경이 대학생의 야간 귀갓길 범죄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충북대학교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 19(1):1-11
10. 서민진 · 김고원 · 오하늘 · 박승연 · 강석진(2023), “성별에 따른 대학가 가로환경의 범죄 불안감 차이” 「대한건축학회」 43(1):101-104
11. 김고원 · 강석진(2018), “주택 유형별 범죄 및 불안감과 CPTED에 대한 인식 분석” 「대한건축학회」 38(1):147-150
12. Brantingham(1993), “Nodes, Paths and Edges:Considerations on the complexity of crime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3(1):3-28
13. C.R.Jeffery(1971), “Crime Prevent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NCJRS」 HV7431.J43
14. Ahmad Nazri(2013), “Impacts of urban land use on crime patterns ththrough GIS applica tion” 「PLANNING MALAYSIA」 2:1-22
15. Jindo Jeong, Tae-Hyoung Tommy Gim(2023), “The Effect of Territorial Stigma on Urban Crime : A neighborhood Analysis in Seoul,Korea” 「ACSP」